

# 77세 노장·10대 고교생... 남다른 기술 열정 '눈길'

## 광주기능경기대회 의상 부문

김재곤씨, 20년간 참가 4회 수상  
"기술자에겐 정년이 없다" 강조  
인문계 고교 재학 광승우군 1등  
"제 이름 건 브랜드 회사 창업"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가 주관한 '2025 광주시 기능경기대회'가 지난 7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의상, 금형, 자동차, 기계설계, 모바일 로보틱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37개 직종에 324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기능경기대회는 기술인들에게는 명예와 미래를 건 엄청난 싸움터다. 남다른 열정을 뽐내고 있는 이색 출전자 2명을 만났다.

### ● "건강 허락하는 한 계속 도전"

"회사에는 정년이 있지만, 기술자에게는 정년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번 대회 의상디자인 부문에 출전한 김재곤(77)씨. 김씨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능경기대회에 꾸준히 참석해왔다. 평생 양봉업에 종사하다 의상 제작에 매료돼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지역 기능경기대회에서 만 총 4차례 수상한 이력을 가진 베테랑으로 거듭났다.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서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그의 열정은 여전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도전하겠다는 김씨의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의상디자인 부문에 출전한 김재곤(77)씨가 9일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다음 목표는 내년 기능경기대회 수상이다.

김씨는 "젊었을 때부터 옷 만드는 것을 좋아해 꾸준히 공부하며 검정고시와 자격증 시험 등을 치렀고, 지금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면서 "이번 대회는 그간의 노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신문을 보니 93세 한국인이 미국에서 의상 일을 하고 있고, 해남에서는 80대 할머니가 옷을 만들며, 일본의 103세 노인이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저도 그분들처럼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 옷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 ● 인문계 고교생의 도전 '눈길'

의상디자인 부문에 참가한 인문계 고등학교인 전남고에 재학 중인 고교 3학년 광승우(19) 군도 주목을 받고 있다. 또래들은 3년 내내 특성화고에서 기술을 배웠지만 광 승우는 학원에서 옷 만드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두번째 참가다.

이번 대회 참가자 중 광주 직업계고 학생은 236명, 일반인은 88명이다.

광 승우는 "어릴 적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다. 기능올림픽이라는 대회를 알게 된 후 흥미가 생겼지만 적합한 학교를 찾지 못해 일반고에 진학했다"며 "이후 학원 등을 통해 꿈을 키워나갔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하루에 12시간씩 옷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의상디자인 부문에 출전한 광승우(전남고 3)군이 9일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만 만들었다는 광승우는 1등인 금메달을 수상해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린 전국기능대회 출전이 확정됐다. 광승우는 "앞으로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제 이름을 건 브랜드 회사를 만들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 ●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 감동"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 때문인지 심사위원들의 자제도 경건하다.

6년째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명장 제586호 전병원 명장은 "심사를 하면서도 참가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

전 명장은 "어르신과 어린 학생 등 특별한 참가자들이 유독 눈에 띄었고, 끝까지

배움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며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가능하다면 손이 닿는 범위 내에서 돕고 싶다"고 전했다.

전 명장은 이어 "이번 대회 참가자들처럼 각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도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저 역시 대한민국의 상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 수상자에게는 오는 9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산업용 드론 제어 등 51개 직종에서 총 18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 5·18단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5·18 유공자 출신... 참담·분노  
尹정권에 협력 헌정질서 훼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을 대항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5·18 유공자 출신인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완규 처장은 학창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며 고초를 겪고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협력해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근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과 연루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

라며 "이는 5·18 정신을 능멸하는 행위이자,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이완규 처장 지명 철회와 5·18 정신 훼손 중단, 헌법재판소의 자정 노력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단체는 "5·18 정신은 특정 정권의 유산이 아닌,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헌법 가치의 뿌리다"며 "권력에 종속된 인물이 헌법 최종 해석을 맡게 되는 날,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철 기자

## 광주 광산구·공무원 노조 협박한 민원인 고발

2개 부서에 245건 민원 제기

광주 광산구와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고의로 민원을 제기한 A씨를 고발했다.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와 광산구는 공무원을 협박하고 고의적 민원으로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 A씨를 공무원집행방해·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개 부서에 민원 245건을 제기, 업무담당자들의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협박 등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심리적인 고

통을 줬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 2월 50건의 민원을 고의로 제기했으며 전화통화로 업무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나 사람 잘 때린다"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 지부장은 "악성민원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더 이상 구 공무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악성민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정준 기자

## 광주·전남 주말 비바람 후 '기온 뚝'... "사고 주의"

다음주 중순께 평년기온 회복 전망  
"기온 하강 따른 각종피해도 유의"

오는 주말 광주·전남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종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일 광주·전남 지역의 최저기온은 4~11도, 최고기온은 18~24도로 평년보다 2~5도 정

도 높은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토요일인 12일에는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후 중으로 전남 남해안 지역과 동부 내륙지역에 10~5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5~30mm의 강수량을 보이겠다.

또한 찬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남하하고, 천둥·번개와 함께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을 동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서해와 남해 지역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일인 13일 최저기온은 3~8도, 최고기온은 12~15도로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떨어진 기온은 다음주 월요일인 14일 한차례 더 비가 내린 뒤 이 주 중순께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주말 사이 강풍이 예보되면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며 "기온 하강에 따른 농작물 등 냉해 피해에도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준 기자

## "사회복지 경력 인정" 인권위 권고... 광주 서구 "난색"

"근거 없어... 문서 확인되면 재협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 산정 시 국가기관의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인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광주 서구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서구는 입장문을 내고 "진정인의 인건비가 전액 국비·시비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및 광주시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은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인권위에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해 재차 요청했다"며 "문서로 근거가 확인될 경우 광주시와 예산 등을 재협

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A씨가 약 11년 7개월간 국가기관인 인권위에서 인권상담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관행이라며, 서구에 경력 재산정을 권고했다. A씨는 현재 서구 관할 사회복지시설인 광주여성회관 여성인권상담소에 근무 중이다.

서구는 관련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권고 수용을 거부했고, 인권위는 이를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와 서구 모두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준명 기자